

공감장 연구: 5·18을 중심으로*

이영재**

이 글은 그동안 이성적, 합리적 분석틀로 조명하지 못했던 5·18의 공감과 감정영역에 주목하고자 했다. 5·18을 공감-감정론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일체의 집단행위를 비합리성의 표출이자 이성과 합리성이 붕괴된 결과로 이해해온 기존 합리론 중심의 사회과학적 해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연구는 공감-감정론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했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한 공감과 감정의 해석, 둘째, 행위능력의 원천으로서의 감정의 역할, 셋째, 공감이론을 기반으로 한 생활세계의 개념적 확장, 넷째, 축적·재생산되는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공감대가 그것이다. 공감장 개념을 활용하여 5·18을 조명하려고 한 이유는 개인적 차원의 경험과 타자와 공동체와의 공감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감정의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공감장 개념을 통해 5·18이 어떻게 열흘간의 항쟁 기간 동안 광주 전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추동했고, 나아가 한국 사회 민주화 투쟁의 중심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공감, 공감장, 5·18, 상호작용, 생활세계

1. 시작하며

현대사의 주요 사건 중 '5·18'만큼 학계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5492).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경우도 드물다. 5·18기념재단이 2006년 3권으로 엮은 『5·18민중항쟁 연구의 현황』에 따르면, 5·18연구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여성학, 심리학, 종교, 신문방송학, 문학 및 예술 분야에 걸쳐 망라되어 있다(5·18기념재단 2006). 2006년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5·18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2007년 이후 공간된 학술논문을 '5·18'로 검색한 결과 765건, '오월 광주'로 검색한 결과 55건, '광주항쟁'으로 검색했을 때 293건이 확인되었다.¹⁾

5·18은 정치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은 탓에 관련 연구의 명칭 변화만 추적해도 5·18을 둘러싼 학계의 관심과 사회적 평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광주(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화를 명분으로 하여 주로 '5·18(민중)항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논자에 따라서는 '5·18 시민항쟁', '5·18민중혁명', '5·18민주항쟁'으로 쓰기도 했다. 안병욱은 '5·18광주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5월 광주를 저항과 투쟁의 구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스스로 무장하고 시민군을 조직해 살인군대와 전쟁을 치렀다는 점을 중시해 5·18 '광주시민전쟁'이라고 부른다(안병욱 2007, 15-21). 이처럼 '5·18'을 어떻게 호명하는지에 따라 항쟁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관점을 가늠할 수 있다.

5·18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적 차이는 '계급'과 '혁명성'을 강조하는 '민중항쟁론', '무장봉기론', '민중혁명론'과 계급을 초월하여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항쟁론'과 '민주화운동론'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이정로(1989)의 연구가 계급성에 기반한 무장봉기론을 주장한 반면 안병욱은 당시 한국의 계급상황에 비추어 피지배층의 포괄적인 연대를 나타내는 민중운동적인 차원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계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2022년 3월 17일 검색).

급적 성격 보다는 정치적·사회적 의미의 '시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안병욱 2007, 17). 반면 5·18 관련 각종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기념식이나 관련 연구에서는 점차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되는 추세다. 물론 논자에 따라서는 최근까지도 '5·18광주항쟁', '오월 광주' '5·18' 등 다양하게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최영태 2015, 113-148; 윤택림 2021, 57).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와 법제화 이후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넓은 개념으로 '5·18'을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 5·18 연구 중 후속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해석으로 『오월의 사회과학』(1999)에서 제시된 '절대공동체론'(최정운)을 꼽을 수 있다. 최정운이 서술한 절대공동체의 의미다. "전통적 공동체에서 절대공동체로의 변환은... 어느 혁명가가 그의 이념이나 말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시민들이 인간이 되기 위하여 적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들이 동료 시민들과 만나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넘어서 한계 상황에서 성령의 계시처럼 이루어진 내면적 과정이었다. 절대공동체는 성스러운 초자연적 체험이었다 ... 이 과정의 경험은 공포를 이성으로 극복하고 인간이 되기 위해 나섰던 각각의 시민들이 다수의 동료들을 만나 하나로 융합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자신, 인간의 존엄성에 의혹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변화의 과정이었고 이는 해방을 의미했다(최정운 2012, 185-190)."

5·18의 절대공동체가 어느 혁명가 한 사람의 이념이나 말로 이룬 항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각각의 시민들이 인간이 되기 위해 나섰던 동력은 무엇이였을까? 또 다수의 동료들을 만나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었을까? '성령의 계시'처럼 이루어진 내면적 과정이나 '성스러운 초자연적 체험'이라는 일종의 유보적 해석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어렵다. 김정환은 이를 '반정치의 신화'로 규정하고 "저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5·18을 과도하게 신

화화함으로써 그로부터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치를 사유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데 기여해 왔다”고 비판한다(김정한 2012, 106). 서유경(2014)은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정치이론을 통해 5·18 절대공동체론을 시민공화적 정치존재론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했다. 최근 황옥자(2021)의 연구는 5·18공동체를 다룬 논의 중 드물게 ‘감정’을 중심으로 10일간의 항쟁을 재구성하고 있다.

5·18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논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5·18 연구가 항쟁에 참여한 각 주체들의 지향이념과 차별성에 보다 깊이 천착하고, 항쟁과정에서 발생했던 투쟁노선을 둘러싼 계급적 토대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 임에 틀림없다(강현아 2004, 125-141). 기존 거대 혁명론 중심의 해석들, 즉 ‘계급’ 또는 ‘혁명성’에 기초하거나 ‘시민성’에 기초한 논의들이 항쟁의 사회적 의의를 정립하는데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리적 거대 혁명담론에만 치중해서는 5·18 항쟁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의 참여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김상봉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내적 형성의 원리를 묻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동체의 현상들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김상봉 2010, 14). 이제 5·18 연구는 5·18이 광주 전역에서 거대한 항쟁의 물결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든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열흘간의 항쟁 후에 5·18이 광주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지, 5·18이 일시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동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5·18의 의미를 절대공동체, 민중항쟁, 무장봉기, 시민전쟁, 민주화운동 등의 전형으로 해석한 각 근거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각각의 해석들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 제안되었

고,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형태로든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관심은 5·18이 사후 에토스로 형상화된 의미, 즉 그것이 '절대공동체'이든, '민중항쟁'이나 '무장봉기', '시민전쟁', '민주화운동'이든 이 에토스와 항쟁 주체의 경험과 참여 동기 사이의 간격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간격은 기존 5·18 해석에 있어 주축을 이루어 온 계급, 이성, 담론 차원의 접근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나 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맞이한 시민군들의 구술이나 관련 내용²⁾에 나타난 기록들에서 확인되는 항쟁의 참여 동기는 계급이나 이성, 또는 여타 혁명 담론 차원과 거리가 멀다. 이 글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항쟁 참여자들의 동기와 항쟁의 확산, 항쟁 후의 공감대 형성 차원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 분석틀로 '공감장'(共感場, empathetic sphere)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공감장이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정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소 실험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장이 언어를 매개로 하듯, 공감장은 공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계의 기존 분류 범주로는 감정론에 가깝다. 그런데 공감이란 곧 감정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감정을 형성하는 작용원리라는 차원에 유의해서 보면 공감장 논의는 기존 감정론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감정사회학은 1970-80년대 켐퍼(Kemper)의 『감정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1978)과 호실드(Hochschild)의 『관리되는 마음』(1983) 출간 이후 학문적 체계를 잡아 왔다. 그런데 점차 감정사회학은 감정을 사회나 문화의 산물로 보거나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감정의 사회적 구성 내지 사회적 결정론에 머물며 미시사회학의 한 영역 정도로 축소되고 말았다(박형신·정수남 2009, 197). 반면 공감장 논의는 공감작용에 의해

²⁾ 구술채록 및 영상기록 등 5·18에 관한 기억과 재현의 문제에 주목한 연구로는 정근식(2003) 참조.

공감감이 형성되는 메커니즘과 개인이 공감작용을 통해 형성한 사회적 감정이 타자 또는 공동체의 공감장과 관계를 맺으며 전환·확산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5·18 연구에서 주체의 경험과 기억에 주목한 것은 심리학 차원의 연구였다. 심리학 분야의 5·18 연구는 개인 차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밝혀 그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거나 매년 5월이 되면 겪는 광주시민들의 '오월증후군'을 밝히는 등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오수성 1990, 187-209; 변주나 1996, 221-259; 2000, 63-73; 최선령 1996, 19-35; 이무석·최호일 2002, 153-158; 박영주 2004, 219-239). 심리학 차원의 연구를 통해서 개인적 피해 또는 집단적 피해의 심리학적 충격을 가능하게 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다만 기존 심리학 차원의 5·18연구는 개인 또는 공동체가 받은 심리적 피해에 주목하기 때문에 당시 5·18 참여자들이 왜 두려움 속에서도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항쟁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분석틀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5·18 관련 연구 중 사회적 감정 차원을 다룬 감정 연구(정근식 2012; 정유하 2017; 정영수 2020; 김기성 2021; 김왕배 2021; 박의경 외 2021; 황옥자 2021)를 공감장 개념을 중심으로 수용하여 5·18의 동인, 확산구조,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이론틀을 구성하는데 있다. 특히 최근 제시되고 있는 공감장 연구(김동일 2017; 조태성 2017a; 2017b; 2017c; 2020; 최혜경 2017; 문재원 2018; 이영재 2018; 2022; 한순미 2018)를 중요한 전거로 활용한다. 이 중 공감장과 관련하여 5·18을 다룬 선행 연구로는 5·18 당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회적 공감장과 소통하면서 또 다른 5·18 항쟁의 주체로 등장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한정훈(2019)의 연구와 망월묘역이라는 상징적 공간성이 시대적으로 변모해 온 추모와 순례의 발길

을 중심으로 '순례공감장' 개념을 제시한 김봉국(2021)의 연구성과가 있다.

공감장 개념을 활용하여 5·18을 조명하려는 이유는 개인적 차원의 경험과 타자와 공동체와의 공감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감정의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공감장 개념을 통해 5·18이 어떻게 열흘간의 항쟁 기간 동안 광주 전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추동했고, 나아가 한국 사회 민주화 투쟁의 중심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그동안 신군부를 위시한 가해자의 정당화 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호출된 시민과 폭도의 이분법을 이성과 감정의 대비로 분석함으로써 5·18연구에서 감정의 역할이 등한시된 배경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5·18에 대한 공감론적 접근의 이론적 특성을 위한 배경으로 공감·감정론의 특성을 네 가지 차원에서 밝히고, 4장에서는 5·18을 통해 본 공감장의 특성과 동학을 제시한다. 5장은 연구의 결론이다.

2. 5·18의 이분법: 시민과 폭도

1) 신군부에 포섭된 이성

그동안 5·18에 대한 감정(또는 공감)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데에는 시민과 폭도라는 신군부의 이분법적 배제 전략의 영향이 컸다. 당시 신군부에 의해 주도된 공론장에서 이성은 진압의 정당성을 대변했고, 감정은 광주시민들의 무질서와 폭동의 상징어로 동원되었다. 5·18의 엄청난 비극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신군부의 강권에 공

론장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³⁾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19일 각 언론사 편집자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아닌) 보안사령관 전두환 명의로 국가안보, 공공질서, 국익 유관사항, 기타 등 4개 분야로 분류하여 「5.17 계엄확대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지침」을 시달렸다. 5·18이 발생하면서부터 신문과 방송에 대한 검열이 더욱 강화되었다.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의 단수나 보도사진의 장수도 제한되었고, 신군부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왜곡한 사항은 과장해서 크게 보도되었다. 5·18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 5월 20일까지 광주에 대한 단 한 줄의 기사나 사진도 보도되지 못했다.

최초의 5·18보도는 5월 20일 전남북계엄본소장의 보도문과 21일 계엄사령관의 대국민 담화문 게재였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월 광주의 적나라한 상황은 일체 기사화될 수가 없었다(김영택 2010, 461-463). 당시 5·18에 대한 보도는 파괴된 현장, 불에 타는 건물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폭도’를 제목으로 뽑고, 광주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원인을 비이성,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보도로 일관하였다. 신문은 굵은 검정색 박스에 흰색 글씨로 “광주(光州)일원 소요(騷擾)”라는 제목을 부각시키고, ‘소요 악화’, ‘난동’, ‘깡패’, ‘현실불만 세력’, ‘유언비어’ 등을 핵심어로 보도했다(「경향신문」 1980. 5. 21).

3) 제5공화국 출범 후에도 언론에 대한 통제는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종전의 「신문·통신 등 등록에 관한 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및 「방송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보도지침을 제정하여 언론사의 통폐합을 실시하였다(진실화해위원회 2010, 249). 기자들의 5·18 취재는 당시 한 줄의 기사로도 보도되지 못했다. 항쟁 8년만인 1988년 당시 동아일보 광주 주재기자였던 김영택 기자가 「10일간의 취재수첩」(사계절)을 출간하면서 5·18 취재내용을 공개했다. 1997년에는 한국기자협회, 무등일보, 시민연대모임이 함께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수첩을 엮어 『5·18 특파원리포트』(풀빛)를 출간했다. 2021년에는 6명의 5·18취재기자들의 취재수첩을 자료총서로 엮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오월 취재수첩』이 출간되었다. 이 중 김영택, 최건 기자의 5·18취재수첩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이다.

계엄사령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요가 악화되어 극심한 난동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학생 및 깡패 등 현실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리는데 기인됐다고 했다(『경향신문』 1980. 5. 21).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5월 21일 담화문을 보면 이성과 비이성의 대립구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담화문은 작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이 국가적 파탄을 자초한 비이성적 행동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이 조속히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은 ... 광주시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비극적인 사태를 냉철한 이성과 자제로서 슬기롭게 극복해줄 것을 광주시민 여러분의 전통적인 애국심에 호소하여 간곡히 당부코자 합니다 ... 순수한 여러분의 애국충정과 애항심이 이들의 불순한 지역감정유발 책동에 현혹되거나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파탄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질서유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동아일보』 1980. 5. 2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성과 비이성을 대립시키고, 5·18을 비이성으로 몰아붙이는 강도가 점차 높아졌다. 이성과 비이성이라는 대립 구도 하에 항쟁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 노동자들의 참여를 모두 의도적으로 부랑자, 깡패, 현실 불만 세력으로 호도하려는 전략적 프레임은 다양한 성명서 등을 통해 광주 시내 도처에 뿌려졌다(황옥자 2021, 118). 5월 23일 광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송정리에서 브리핑을 받고 담화를 발표한 신임 박충훈 국무총리는 선량한 시민과 폭도를 나누고, 이 '폭도'들은 학생들이 아니라고 호도하였다. 그리고 군은 자제하고 있지만, 현재 광주는 '치안부재' 상태라고 왜곡하였다. 언론에는 연일 파괴된

시가지 사진, 검은 연기가 치솟는 사진이 게재되었다. 5월 22일부터 일부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한 사건일지는 사건일지가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폭동일지였다. 24일 석간과 25일 조간에는 서울에서 남파간첩이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남파 임무는 광주에 침입하여 선동하는 것이며 강렬한 파괴활동을 위해 환각제까지 소지했다고 보도되었다(최정은 2007, 416). '남파간첩'과 '환각제'는 비이성의 문제를 도드라지게 만들고 여기에 반공프레임까지 덧씌우기 위해 동원된 용어로 보인다. 신문지면에 남파간첩과 환각제가 등장한 직후인 5월 25일 오후 대통령 최규하가 광주에 도착하여 '광주시민에게 고하는 특별방송'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요지는 "광주시민들이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 슬기롭게 현재의 불안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또 "비록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에 의해 잘못된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정부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고 불문에 붙이겠다"고 했다(『동아일보』 1980. 5. 26.). 오월 광주의 처절함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에 의한 잘못된 일이니 결국 광주시민들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흥분과 감정은 광주시민의 몫이고 이성과 관용은 정부 차지였다. 이러한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은 항쟁이 끝난 5월 31일 계엄사의 「광주사태」 종합발표에서도 지속되었다.⁴⁾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한 이유가 광주 시민이 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표의 전문과

4) 이성과 비이성의 프레임은 무기 회수와 관련한 시민군과 수습위원회의 대립으로까지 파고 들었다. 무기 회수의 과정은 계엄군이 주장하는 '불순분자', '폭력배', '비이성적 폭도'의 소행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한, 지극히 이성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과정은 항쟁 초기, 광주 시민이 공유했던 합리적 감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절대 공동체 하에서 통하지 않았던 비이성-이성 프레임이 무기회수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계급들을 가시화하면서, 스스로 이성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계급들이 등장하기도 했다(황옥자 2021, 123-124).

해설이 모든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전문 중 일부를 옮겨 보면 이렇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불순선동분자와 철없는 난동폭도의 소행”이고, 군과 데모군중의 충돌진상은 “상호간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자 다 같이 혈기왕성한 젊은 군인과 학생들은 감정이 폭발, 욕설과 고함으로 대항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소란 중에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유언비어로서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러 왔다’, ‘경상도 군인만 골라서 왔다’는 냉철한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역감정을 촉발, 선동하는 말들이 삼시간에 전 광주 시내에 퍼져 시민을 흥분시키고 시위양상이 극렬화”되었다는 것이다. ‘난동’ 경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19일에도 유언비어는 시내에 더욱 퍼져 이성과 냉철을 상실한 군중심리가 광주시내를 휩쓸게 되었고 흥분한 일부 군중이 극렬한 시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동아일보』 1980. 5. 31). 6월에 육군본부 명의로 발표된 「광주사태의 진상」도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되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유언비어의 실체를 보다 구체화해서 호도했다는 점이다. 유언비어의 실체로 “살사는 놈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구두담이, 녀마주이, 양아치, 공원, 전과자, 무직자 등이 참여했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보도했다(최정은 2007, 421).

역설적이게도 5·18에서 이성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호출되었다. 반면 5·18연구에서 감정은 이 기형적 대비 구도를 깨뜨리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침잠되어 있었다. 신진욱이 “광주항쟁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거나 감정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말한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게 당시 계엄사나 국방부, 언론들의 거짓된 주장과 손을 잡게 되는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5·18연구에서 감정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바로 이 위협이 5·18에 대한 감정론적 연구를 위축시킨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항쟁과, 광주의 불평이 같은 원혼을 부여안고 돌진했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은 이 위험이 초래한 자기검열에 갇혀 거시적 정치과정과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차원을 분석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광주항쟁의 참여자들은 이익추구, 권력투쟁, 인지적 프레임 등과 같은 합리주의적 인간학에서 출발해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신진욱 2005, 159). 이것이 5·18에 대한 공감이론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2) 5·18 폭도 담론과 변혁론

1980년대 청년·학생운동 진영에 혁명론이 확산되면서 5·18에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시작되었다. 신군부의 비이성적 5·18폭도 담론에 대한 일종의 항전이 시작된 것이다. 1985년 전국민중학생연합의 「광주 민중항쟁의 현대사적 재조명」은 광주지역의 경제적, 계급적 특수성을 분석한 바탕 위에서 민중들이 현실을 변혁하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힘과 형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해석의 특징은 민중은 피동적으로 등장한 참여주체가 아니라 이미 이전의 운동에 의하여 의식이 성숙된 단계에 있었다고 전제한다는 점이다(전사연 1988, III-22, 273-281; 최정운 2007, 425). 같은 해 전남대총학생회 학술부 명의의 「5·18민중혁명성 고찰」도 광주 민중들의 혁명의식이 충만해 있음을 전제하고, 그들은 이미 높은 반미의식을 갖고 높은 혁명의식으로 민중혁명의 최고 형태인 내전으로 질적 비약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전사연 1988, III-34, 389-402; 최정운 2007, 425). 광주시민들의 혁명의식은 유언비어, 난동, 환각제 등으로 얼룩진 비이성적 무질서와 즉자적 혼돈상태를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반대급부로 호출되었다. 이는 신군부의 왜곡으로부터 5·18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강력한 항변이었다. 1989

년 이정로(필명)는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계급혁명성을 바탕으로 5·18의 의미를 재규정하면서, “광주의 무장봉기는 민족민주혁명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평했다. “광주봉기의 핵심적 역량은 노동자계급이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적 학생, 소상공인, 지식인이 결합함으로써 광주봉기는 계엄군을 몰아내고 일주일간 광주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은 수적인 구성에서나 투쟁에서의 헌신성에서나 광주봉기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다. 이정로는 혁명의식을 전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5·18을 권력 탈취 및 새로운 권력의 수립을 위한 혁명으로 평가한다. 그는 “무장을 통하여 권력을 탈취하고자 하는 시도, 낡은 권력을 깨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고자 하는 광주민중의 영웅적 투쟁의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980년 5월의 광주무장봉기가 시민학생투쟁위원회라는 또 다른 임시혁명권력을 탄생시켰다고 의미부여 했다. 이 임시혁명권력은 러시아 혁명 당시의 소비에트라는 혁명적 권력에 다름 아니다(이정로 1989).

5·18항쟁의 의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역사학을 비롯해 사회과학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역사학자인 안병욱은 당시의 시대상을 10.26 이후에 사회의 민주화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당연한 추세였다고 진단한다. 그는 5·18을 통해 광주시민이 이러한 국민 모두의 요구이자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업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광주 시민은 이러한 흐름을 거역하는 반란 세력을 격퇴하고 나아가 왜곡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청산하고자 했다(안병욱 2007, 16).” 이는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유언비어에 속거나 남파간첩의 선동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외에 5·18 연구의 대략적인 흐름은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 초점을 맞춘 민중운동론적 시각, 광주시민의 무장투쟁을 진압하면서 또 하나의 군사독재정권을 창출시킨 권력집단의 전술전략에 주

목하는 정치공학적 시각, 광주민중항쟁의 이념적 뿌리를 조망해 보려는 이데올로기적 시각, 지역 간의 불평등과 갈등에서 사태의 근본원인을 찾는 사회학적 시각 등으로 확대되었다(한상진 2007, 283).

이와 같이 5·18항쟁을 둘러싼 평가와 해석은 변혁론을 위시하여 각종 학술적 상상력이 펼쳐지는 장(場)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5·18을 자본주의 모순 극복을 위한 투쟁이거나 시민공화주의 실현이라는 이상적인 지향에 부합하도록 의미부여 하는데 주력했다. 다수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5·18 이후에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을 빌어 그 발생 원인과 과정을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의 욕구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김상봉 2015, 62). 다른 한편으로 5·18을 시민공화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화 된 투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서유경 2014). 이렇듯 사회운동 진영이나 사회과학자들의 5·18 관련 기존 연구는 신군부가 목적의식적으로 왜곡시킨 비이성, 유연비어, 감정적 폭동에 대한 반대급부적 차원에서 혁명의식이나 민중의식, 민주의식을 강조하며 항쟁의 정치적 합리성과 의의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성적, 합리적 전제를 바탕으로 항쟁의 의미를 부여한 연구들은 광주시민들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행위의 내적 동인을 사전에 전제한 계급성, 혁명성, 민중성, 민주성 등으로 설명했다. 이 글은 이런 기존 연구들의 내적 동인 설명을 공감장에 기반해 실체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 노동자계급의 목적의식적 봉기와 같은 시도로는 삶이나 죽음이나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항이라는 능동적 행위로 도약하게 되는 저항의 정치학이 구성되는 임계점을 만든 동인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감성인문학연구단 2017, 86-87. 참조). 이런 점에서 최근 당시 신군부의 이성(시민)과 감정(폭도)의 이분

법 구도를 뒤집는 상반된 차원에서 감정의 역할을 다시 규명하고, 5·18을 감정론적으로 재조명하는 연구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황옥자는 “왜 그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왜 그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 간 분열이 일어난 것인지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해명’을 강요하는 여전히 지속되는 비판이론들에 제대로 답해줄 수가 없다”고 강조한다(황옥자 2021, 98).

3. 공감-감정론의 특성

5·18을 공감-감정론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제도화된 정치과정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집단행위를 비합리성의 표출이자 이성과 합리성이 붕괴된 결과로 이해해온 기존의 행태주의적·군중이론적·사회심리학적 설명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대의 사회운동 이론들은 다양한 종류의 합리성 모델을 발전시켜왔는데, 그중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예로 목적-수단 도식에 입각한 도구적 합리성 모델(자원동원론), 거시적인 체제-도전자 구도에 기초한 집단적 합리성 모델(정치과정론과 정치적 기회구조론), 그리고 사회학 이론의 구성주의적 전통을 사회운동에 적용시킨 인지적 합리성 모델(프레임 학파와 집단적 정체성 이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이론들이 그동안 집단행위와 사회운동 연구를 잘 설명해 왔지만 보다 진전된 논의들을 위해서 합리성/비합리성의 이항대립을 극복하고, 인간행위의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사이의 연계·교차·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운동의 행위동학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신진욱 2007, 204).

신진욱은 5·18 당시 유통된 1차 텍스트를 기초자료로 분석하여 감정 주체, 감정유형, 감정유형과 감정주체들 사이의 관계, 감정유형들 간의 연관 관계, 지배적 감정의 시계열적 동학을 설명하고자 했다(신진욱 2007, 203-243). 이 연구는 당시 5·18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감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감정연구에서는 드물게 엄정한 연구대상과 방법론을 적용해 이성과 비이성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5·18 당시의 언어화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5·18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의 행위동인과 감정의 '연계·교차·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행위동학을 설명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텍스트의 작성 주체가 지식인이거나 항쟁 당시 리더그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정 해석을 위해 분석한 텍스트는 5·18에 참여한 시민들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유인물 작성자들의 언어를 기반으로 항쟁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의식적 차원에 기초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공감·감정론 관련 연구성과들을 검토한 결과 5·18을 공감장 차원에서 조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에서 공감과 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적인 것 자체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삶(행위), 사회관계, 사회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감정사회학의 논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감정사회학은 감정이 모든 사회 현상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강조한다(하홍규 2018, 110-118). 최근 5·18 관련 연구들도 감정을 개인적이고 주관적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에서 형성된 사회적 감정인 '분노(공분)'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김왕배는 5·18을 "존재를 짓밟은 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원초적 저항"이었다고

일갈한다. 이 원초성은 이념 이전에, 가치 이전에, 사유 이전에, 지식 이전에 몸과 직관으로 알아 채기는 생기(生氣)와도 같은 것이다. (5·18은 필자) 거대하고 무서운 폭력 앞에서 공포, 두려움, 수치, 분노의 감정을 따라 움직인 강렬한 싸움이였다(김왕배 2021, 218-219). 김기성은 “광주정신의 보편성은 주어진 실체도 아니고 지성적 노력이나 의지로 발전될 수 있는 이성적인 것만도 아니”라고 강조한다(김기성 2021, 233). 정영수(2020)는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광주시민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면, 항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끈 힘도 역시 분노라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둘째, 행위능력의 원천으로서 이성이 아닌 감정(또는 마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데이비드 흄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 “이성만으로는 결코 의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동기일 수 없고, 이성만으로는 결코 감정에 맞설 수 없다(T. 2.3.3.1)”⁵⁾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민들이 5·18에 참여하게 된 동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항쟁이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적 행위의 동기와 관련하여 감정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군의 사회학자들이 ‘마음의 사회학’을 주창하며 ‘마음이 행위 능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행위가 행위자의 ‘마음’을 기원으로 한다는 말이다(김홍중 2014, 185). 이는 행위이론적 차원에서 위 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통적 행위이론에 대한 감정론의 도전이면서, 좁은 의미의 ‘합리성’ 개념으로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려는 합리적 선택이론 같은 기존 사회학적 관점의 협소함을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이는 한편으로 사회적 행위나 사회변동의 동

5) 이하에서 Hume의 *A Treatise of Human Nature*의 인용은 Norton의 2000년 Oxford Univ. Press판본이고, T.로 약칭한다. 인용시 T. 뒤의 숫자는 Book. Part. Sec. 문단 순서 표시다.

학에 미치는 감정이나 감성의 영향력이 등한시되었음을 지적하는 것
이자(박형신·정수남 2009), 사회적인 것이 어떻게 감정적인 것에 기
초하는가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박소진 2016, 69. 참조).

셋째, 생활세계에 대한 공감-감정론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마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감정의 영역적 거소
(居所)는 생활세계라고 할 수 있다. 생활세계는 행위자들이 상황에 맞
닥뜨릴 때 맥락을 형성하는 “지평과 배경”이면서 동시에 공통의 상황
정의에 이르기 위해 활용하는 “자원”이 된다(Habermas 1981, 133-135).
생활세계의 상징적인 구조적 성분들은 ‘타당한 지식의 지속’(문화적 재
생산), ‘집단적 연대성의 안정화’(사회적 통합), ‘책임 있는 행위자들의
사회화’(사회화)에 의해 재생산된다(Habermas 1981, 144). 생활세계는
언어적 소통에서 중요한 판단의 준거를 이루는 규범적 배경이자 일종
의 저장소이면서 동시에 ‘도덕성’, ‘신뢰’, ‘인애’, ‘동정심’과 같은 비언
어적 공감작용이 전개되는 영역이자 사회적 감정이 교차하는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다.⁶⁾ 즉 생활세계는 비언어적 공감작용을 바탕으로 한
‘관습’과 ‘규범’의 저장소이자 사회적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생활세
계의 재생산 범주(문화, 사회, 인성)들은 하버마스의 합리론적 관점의
배타적 앵글이 아니라 공감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풍부하게 포착될 수
있는 범주들이다(이영재 2018, 96; 2022, 27). 이렇게 본다면 기존 하버
마스식의 생활세계-공론장-체계의 범주는 생활세계-공감장·공론장-
체계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감작용에 기초한 사회적 감정은 일순간 등장했다가 사라지
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에 축적되거나 재생산되기도 하고, 시대를 관
통하여 장기간 지속되기도 한다. 한국인들이 근대라는 세계사적 시간

⁶⁾ 이는 이성과 소통합리성에 입각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를 공감이론적 차원에서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재(2022) 참조.

들과 연속적으로 부딪치면서 축적된 역사적 감성들은 시대를 넘어 전승되기도 했으며, 이들은 또한 거시적 사회변동에 따라 해체되거나 새롭게 형성되기도 했다. 그것은 민중들의 일상생활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재현의 영역, 즉 그림이나 노래, 춤,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만담으로 표현되며, 보다 세밀하게는 영화, 드라마, 각종 문학 텍스트로 정교화 된다. 감성은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대 사건, 또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속성을 가진다. 정근식은 1980년 5월, 10일간의 시민항쟁이 처절한 주검들을 남긴 채 끝나버린 그 날 새벽의 정적 속에서 호남 현대사에서 삼켜진 집합적 슬픔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동학혁명의 민초들의 희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러한 사회적 감성의 역사적 기원을 찾는다(정근식 2012, 8-14).

사회적 감성은 이렇듯 시대를 관통하여 공감장의 한 차원에 장기적으로 배태되는 특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5·18의 체현(體現)은 ‘분노’로 표출되었고, 이는 개인의 분노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이 분노는 80년대와 90년대의 사회적 삶 속에 배태되었다. 한동안 5·18 이후 대학생이 된다는 것, 시대를 걱정하는 청년이 된다는 것은 ‘분노의 체험들’을 공유하는 것이자 ‘분노의 표현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시대의 분노는 개체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전에 대자보의 격한 구호 속에, 화염병과 짱돌의 난무 속에, 파업이나 휴업의 결의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자신을 자책하던 풀죽은 눈빛들 속에, 소주의 독하고 뜨겁고 매운 기운 속에, 탈춤을 추고 죽창을 휘두르는 낮선 판화의 영상들 속에, 민중가요를 부르는 목소리들 속에, 분신(焚身)하는 몸뚱이의 충격적인 몸부림과 이를 지켜보는 경악의 눈동자들 속에, 레닌과 마오를 읽고 싸우는 논쟁 속에, 농활과 엔티의 고된 노동과 휴식의 담배 연기 속에, 혼자 떠나는 여행과 구겨진

일기와 부치지 못한 편지들 속에, 촌스런 연애의 형식들과 빛나던 우정의 체험들 속에 이미 먼저 구현되어 있었다(김홍중 2008, 240-241).

이상의 네 가지 논점으로 정리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한 공감과 감정의 해석, 행위능력의 원천으로서의 감정의 역할, 공감이론을 기반으로 한 생활세계의 개념적 확장, 축적·재생산되는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공감대는 곧 공감장이라는 분석틀의 주요한 특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공감장을 통해 개인적 공감 작용이 사회적 감정으로, 사회적 공분으로, 공감대로 전환하는 공감장의 동학 차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4. 5·18을 통해 본 공감장의 특성과 동학

1) 공감장을 유동(遊動)하는 공감감정

감성인문학연구단의 연구(2017)는 감성론적 접근을 통해 5·18에 대한 보다 심층의 내적 동인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들이 공감장(共感場) 개념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 및 역사의 동역학을 추동하는 인간 행위의 내적 동인을 감성론의 차원에서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5·18에 대한 수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고 있는 도대체 왜 광주시민들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적 동인은 무엇이었는지를 공감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바람직한 용어들을 동원한 사후적 설명으로는 5·18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의 승패 여부를 이미 초월해버리고 목숨을 초개처럼 내던지는 비합리적 행위로 종지부를 찍은 5·18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합리성 범주와는 결이 다른 감정의 구조 또는 감정의 동학(dynamics)으로 전사(轉寫)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관점은 5월 항쟁을 비교적 단일하고 균질적인 덩어리(신체)가 아니라 미시적이며 이질적인 사건들의 다발 또는 아상블라주(assemblage)로 파악하는 것이다. 공감장은 이러한 이질적인 사건들의 다발 속에서 신체들의 마주침과 그로 인해 촉발된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그것들이 형성해내는 운동들을 전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말한다(감성인문학연구단 2017, 86-88).

필자는 감정론적 접근을 통해 5·18참여자들의 내적동기를 재조명하겠다는 감성인문학연구단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다만 이들이 제안한 공감장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이들이 제시한 공감장의 핵심 역할은 다양한 감정들이 형성해내는 운동의 전사에 있다. '전사(轉寫)'란 글이나 그림을 옮겨 그대로 베낀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서술대로 이해한다면 5·18 공감장은 "이질적인 사건들의 다발 속에서 촉발된 다양한 감정들이 형성해내는 운동"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틀이 된다. 당시 참여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다양한 감정이 형성해내는 운동을 전사한다고 해서 5·18 공감장의 메커니즘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18에서 공감장이란 개인이 공감작용을 통해 사회적 감정(죄책감, 굴욕 등)을 형성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이 감정에 관여하고, 상호 공감작용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공감대(사회적 공분 등)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 공감대에 의해 개인의 감정이나 공동체에 또 다른 공감감정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등 개인적 공감, 사회적 공감이 공감장의 (도덕적) 준거와 마주하며 집합적 공감감정으로 전환하는 역동적 장이다. 공감장 연구는 감정을 단순히 인간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내면 현상으로만 간주하는 경향과 달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되고 전환되는 감정작용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있다. 사회란 순수한 자기-이해와 경제적 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미스(Adam Smith), 쿨리(Charles Horton Cooley),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들의 도덕공감이론(theory of moral sympathy)이 보여준 것처럼 사회는 감정성과 공감의 도덕적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하홍규 2018, 126).

공감장에서 펼쳐지는 다이내믹한 감정의 변화 양상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8의 참여자 또는 관찰자는 특정 사건을 겪은 타인(또는 자신)의 상황을 보거나, 다른 매개를 통해 5-18의 참상을 전달받고 공감작용을 하게 된다. 이때 타인(또는 자신)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감작용에 따른 공감감정, 즉 사회적 감정이 형성되고, 의미가 생성된다. 참여자 또는 관찰자는 타인(또는 자신)이 중대한 가치를 박탈당했거나 결핍했을 때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된다.⁷⁾ 것처럼 특별하고 강력한 가치부여와 의미부여에 의해 행위자는 비로소 “도덕적으로 충분한 공감(morally sufficient empathy)”, 즉 고통 받는 어느 타인의 상태를 느끼려는 심리적 공감에서 더 나아가, 그 고통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생겨난다(Garrett and Graham 2014; 강태수·신진욱 2019, 195-196). 타자의 박탈 상황에 더 강렬하게 공감하고, 사회적 감정으로서의 분노(공분)로 전환되는 것은 공감감정 중 특별히 도덕감정에서 더 그렇다. 도덕감정의 종류는 예상보다 많고 다양하다. 도덕감정은 타자 공감을 출발로 하여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경멸하고 분노하는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탑재하고 있다(김왕배 2013, 137). 도덕감정은 다양한 개별 감정이 얽혀 있는 총체로서 매우

7) 공감의 작용 강도는 ‘근접성(proximity)’, ‘유사성(similarity)’, ‘친숙성(familiarity)’이라는 세 가지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de Waal 2009, 221).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속성을 갖는 감정이다. 도덕감정을 이루는 다양한 개별 감정들을 크게 긍정/부정적인 두 범주로 나누어본다면 전자에는 동정, 공감, 감사, 신의 등의 감정이, 후자에는 부끄러움, 죄의식, 모멸, 경멸 등의 감정이 들어있다(Turner and Stets, 2007; 김왕배 2013, 141. 참조).

한정훈은 5·18로 인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그 후의 삶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을 아들의 죽음을 한 개인의 고통(나만의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고통'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공감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를 공감장 차원으로 풀어낸다. 대상화자(구술인터뷰를 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필자)들이 5·18을 주체의 사건으로 접촉하게 된 계기는 '아들의 죽음'이었다. 대상화자들은 비통합에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고, 정신이라도 차릴라 치면 눈물만 나왔다(한정훈 2019, 150). 아들의 죽음은 대상화자들에게 곧 5·18을 '나의 사건'으로 전환케 했다. '나의 사건'으로서의 5·18은 아직까지 어떠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죽은 아들만이 대상화자들에게 문제시되었다. 대상화자들이 자신의 행위와 아들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대목에서 포착된 감정은 죄책감이다(한정훈 2019, 157). 죄책감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통해 형성되었다.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죽은 아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부상자를 실어 나르다 죽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운전면허 취득을 허락한 것까지도 죄책감의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이 죄책감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일방적으로-필자) 사회에 부과한 정체성이다. 이 죄책감은 곧 수치심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구술인터뷰 대상인 화자A는 군인들의 제지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아들 곁을 지킬 수 없었다. 아들이 이후에 어떻게 매장됐는지 알 수도

없었다. 화자A는 아들의 주검이라도 찾아오기 위해서 국군통합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아들은 어느 사격장이라는 곳에 다른 주검과 함께 아무렇게 묻혀 있었다. 또 다른 화자B는 27일 새벽이 되자 아들 곁을 지키기 위해서 상무관으로 갔다. 군인들이 광주 시내 곳곳에 총을 들고 있었고, 간간이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화자B에게 큰 문제(공포나 두려움·필자)가 되지 않았다. 화자B는 상무관에 들어가 아들의 관 앞에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군인들이 들어와서 화자를 상무관 밖으로 내쫓았다. 아들은 쓰레기차에 실려 망월동으로 갔다. 대상화자들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신들의 행위와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실감, 즉 아들의 말하지 못함과 죽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미안함을 상징적 애도 행위를 통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상화자들의 애도 행위는 군인들에 의해 금지 당했다. 애도의 강제적 금지는 화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했다(한정훈 2019, 159-160).

이 광경을 목도하거나 소문으로 들은 광주시민들은 두려움과 굴욕의 감정을 넘어 분노했고, 이 분노가 금남로를 따라 사회적 공분으로 이어졌다. “고통의 분유를 통한 공통성 구성은 주체와 타자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결코 타인의 고통을 쉽사리 제단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더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으며, 이 과정에서 공감장이 형성된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분노로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의 분유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감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한정훈 2019, 177-178).” 그리고 이 5·18 공감장을 통해 어머니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또 다른 공감감정인 사회적 공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대하는 마음과 행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 공감장에서 주체와 객체가 함께 부동켜안고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이 열렸다.

다른 한편 5·18에서 참혹한 현장을 벗어나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침윤되어 있다. 함께 하지 못했다는 무기력한 방관자의 감정, 트라우마로 남은 부끄러움은 좀처럼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죄책감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규범이나 의무, 가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앞서 축적·재생산되는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공감대를 공감장의 속성 중 하나로 살펴본 바 있는데 5·18과 관련한 이 죄책감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연대감정은 개인과 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5·18이 일어난 지 41년이 지난 2021년에도 강단의 한 중견 연구자는 5·18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5·18을 연구 대상으로 대하는 마음의 일단을 드러냈는데, 그는 순탄치 않았던 시대에 나름 ‘요령 있게 살아온 자’의 성찰로 논문을 시작했다(김왕배 2021, 192-193). 5·18 관련 학술토론회나 학술논문, 저서 등에서도 심심치 않게 필자들의 이러한 성찰적 고백을 접하게 된다.

도청 최후 항전에 참여했다가 살아남은 자의 성찰도 다르지 않다. “나에 있어서 5월은 … ‘일심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5월은 내 인생이자 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내 인생에서 5월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또 5월에서 나를 분리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27일 날 도청에서 죽어버렸으면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없었겠지만 살아남은 자로서의 원죄를 가지고, 항시 가슴에 품고 살아 왔어요 그동안. 그때 같이 동기들 하고 죽지 못한 그런 원천적인,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할 나의 죄죠.”⁸⁾ 이 부끄러움과 죄책감, 미안함의 사회적 감정 또한 오랫동안

8) 이 구술자료는 2011년 5·18 기념재단이 「최후항쟁의 의미와 증언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구술인터뷰 한 것이다. 재단은 지난 2021년 이 자료에 대한 구술자료정비 및 기초정리사업(2차)을 진행했다. 이하에서는 「최후항쟁 증언」으로 축약하여 인용한다.

5-18 공감장을 구성해왔다.

2) 도덕적 임계점과 5-18 공감장

2016년 '촛불집회'를 분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공감장 논의를 배경으로 보자면 촛불집회의 본질은 사회적 공감 차원에서 어떤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어선, 그것도 사회적 도덕적 준거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회적 공감장이 폭발한 사건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이 공감장의 임계점이 특정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참고로 공감장과 관련하여 임계점이라는 용어는 감성인문학연구단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다. 감성인문학연구단은 “공감장의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임계점은 분명 중요한 지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점이며, 어떤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이것만큼은 건드릴서는 안된다는 것(감성인문학연구단 2017, 114)”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이 ‘임계점’을 보편적 공감대의 도덕적 경계선으로 이해한다.

생활세계의 준거로서 기능하는 공감장이 임계점을 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사회적 공분이 폭발하여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버마스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우려했는데, 사회적 공감대 역시 임계점을 벗어난 국가폭력 등에 항거했다가 지속적인 탄압 상황에 오랫동안 압박받거나 왜곡된 사회적 학습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 임계점에 손상이 오거나 둔감해 질 수 있다. 이 임계점을 경계로 하는 보편적 공감대의 중핵은 오랜 세월 누적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들이 응축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사회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마다 임계점의 반응 민감도가 다르지만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경계는 어느 정도 보편화가 가능해

보인다.

도덕적 마지노선의 실체를 적절한 사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국제법상의 상위 절대규범으로 자리 잡은 강행규범의 내용을 이에 빗대어 볼 수 있다. 강행규범은 '집단살해의 금지', '인도에 반한 죄', '고문 금지', '노예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인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가치와 공공의 이해 관계를 추구하는 도덕적 상위 가치규범에 대한 절대성이 부각되었다.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적 성찰 속에서 이러한 강행규범은 국제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어떤 국가의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강경자 2017, 262-263). 물론 보편적 공감대는 이와 같이 '무엇', '무엇의 금지'와 같이 실체화하기 어렵지만 행위자들은 사회적 행위의 적절성을 비추어보거나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 보편적 공감대의 작동을 느낀다. 이 보편적 공감대는 공감도덕의 사회적 준거 역할을 위한 이론적 장치로 데이비드 흄이 제시한 '사회적 거울'(social mirror)이나 아담 스미스의 '불편부당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 개념과 맥락적으로 연결된다.

세월호 사건도 우리 보편적 공감대의 임계점을 넘어서 사건이었다.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곧 분노, 무기력감, 슬픔, 우울, 미안함, 불편함과 같은 감정을 느꼈고,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감정이 강했다고 말한다. 또 (세월호 추모-필자) 활동에 참여한 여러 면접참여자들에게 "같이 잘 사는 것"은 그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가치였다. 보편적 공감대란 이와 같이 논리적 정당화가 필요 없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당연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 그것들을 박탈당하거나 어쩔 수없이 그렇게 경

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져요. 왜 그래야 되는지 ... 인간은 똑같이 다 존중을 받고 존엄해져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하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강태수 · 신진욱 2019, 208-2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가치의 박탈에 공감했고, '도덕적으로 충분한 공감'을 했다. 그리고 세월호 공감장을 통해 이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 동참하는 행위와 실천들이 이어졌다. 이들이 단지 타인과 공동체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환경에서 살아온 덕분에 다른 타인들에 대한 공감 가능성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었다. A그룹의 여러 면접참여자는 '이미 준비된' 가치관을 세월호 활동에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거나 예기치 않은 새로운 현실과 조우하는 바로 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강태수 · 신진욱 2019, 211). 이는 5·18 참여자들이 아닌 관찰자, 타자 또는 후세대들이 5·18 공감장을 통해 공감하고, 분노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1980년 5월 항쟁에 참여한 군중의 규모가 적게는 15만에서 많게는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당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규모가 72만 명을 웃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언론보도와 유언비어 등을 통해 5·18의 집합 경험을 공유하고 목격한 시민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진행한 「광주시민 사회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위의 목격(84.5%)과 최루탄 발사장면의 목격(72.4%)은 거의 모든 광주 시민들이 공유한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수부대의원의 구타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9.5%, 부상자를 목격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0.8%로 나타나 항쟁 당시 공수부대의 구타와 부상

피해가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편 1988, 25-27).

1980년 5·18 당시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취재수첩」에 기록된 내용들이 항쟁 당시 광주의 처참함을 잘 보여준다.

“최○○(25, 전남고 국어교사 부인) 생후 9개월 된 남아가 있다. 유 탄으로 두부 관통상(「취재수첩」 28).”

“공수단이 대검으로 찢러 현장에서 죽었다(「취재수첩」 51).”

“간호원을 (18일) 붙잡아 피가 낭자하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끌어 올려 실은 후 하체를 벗긴 후 마구 때리고 가택수색하면서 학생, 젊은이는 마구 때려 연행, 천주교회관(가톨릭센터) 앞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젊은 남녀 30여명 옷 다 벗겨 놓고 기합주다(「취재수첩」 54).”

“옥상에 대피하는 학생, 시내버스 내 학생까지 연행. 양동 우진APT 부근 구타, 연행. 할머니가 말리자 할머니도 때림. 시내 전지역에서 학생 구타. 무등고시학원생 40명 수업 중 연행(「취재수첩」 126).”

물론 이 현상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광주시민이 분노라는 동일한 감정을 동시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본성적 공감 작용을 통해 계엄군이 두려워 눈앞의 야만적 폭력을 도외시하거나 나서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죄책감, 수치심, 공포감, 굴욕감 등 다양한 공감감정의 형성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공감감정들은 금남로에서, 집 앞의 골목에서, 5·18 항쟁의 곳곳에서 5·18 공감장과 연계·교차·상호작용 했다. 당시 5·18 공감장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유치원에나 다닐 법한 어린 꼬마의 손을 잡고 나온 할머니로부터 술집여자로 보이는 아가씨들, 점

원, 학생, 봉투를 든 회사원, 가정주부, 요식업소의 종업원” 등을 만나면서 광주시민들은 “더 이상 피하거나 달아나려 하지 않았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차라리 우리 모두를 죽여라!’고 절규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다. 아리랑을 부를 때는 거의 울음바다가 되었다 … 노동청 방향으로 여고생 6명이 대형 태극기를 펼쳐 든 채 앞장서고 수백 명의 시민이 그 뒤를 따르는 시위 대열도 나타났다. 공수부대로서는 광주시민의 이런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황석영 외 2021, 141-145).”

5. 맺으며

이성적, 합리적 전제를 바탕으로 5·18에 항쟁의 의미를 부여한 기존 연구들은 광주시민들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내적 동인을 계급성, 혁명성, 민중성, 민주성 등에서 찾고자 했다. 이는 한편으로 신군부가 자신들의 야만적 국가폭력을 사회적으로 은폐하고자 시도한 시민(이성)과 폭도(감정)의 이분법적 배제전략에 대한 일종의 담론적 항전이기도 했다. 필자는 이 담론적 항전은 충분히 시대적 역할과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앞장서 5·18에 내재한 계급성, 혁명성, 민중성, 민주성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신군부가 철저히 다져놓은 5·18 공론장의 왜곡이 바로 잡힐 수 있었고 5·18에 제대로 된 사회적 의미 부여가 가능해졌다.

이 글은 그동안 주로 이성적, 합리적 분석틀로 접근하면서 조명하지 못했던 5·18의 공감과 감정영역에 주목하고자 했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성, 민주화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체감되지 않는 삶이나 죽음이나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광주시민들이 저항이라는 능동적 행위로 도약하면서 느낀 심정적 갈등, 동참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5·18 공감장 속에 함께 공존해 온 우리들의 이야기(De te fabula narratur!)를 담을 수 있는 논의틀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필자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직접적 동기는 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치른 시민군의 「최후항쟁 증언」 구술인터뷰를 보면서다. 말 그대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사선에서 항전한 시민군의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다른 전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나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어, 실질적으로 그때 민주주의 알고 그러면 나 안 해부렸제.”

“그때 보면 사람들 막 한 가지였을 거 같애. 이렇게 보면 나도 막 이렇게 보면 학생들을, 학생들을 막 죽이고 시민들을 죽이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오로지 사람 죽이고 이런 과정을 보고 불이 나서 이게 달라 들어서 끝까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지.”

“자연히 손 떨리제. 그냥 막, 그 이게 별나도 군인들이 더 무섭게 보여 불고, ‘위메~ 나 집에 가 있을 거인다. 왜 이렇게 나와 갖고 방위나 잘 받을 것인다. 뭣 하러 나와 갖고 이것이 ….’ 잠깐 후회도 했제.”
(이상 「최후항쟁 증언」 구술인터뷰 중)

5·18을 공감-감정론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일체의 집단행위를 비합리성의 표출이자 이성과 합리성이 붕괴된 결과로 이해해온 기존 합리론 중심의 사회과학적 해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행히 최근

5·18과 관련한 감정론적 연구와 공감장 연구가 축적되고 있어 이론적 전거로 활용할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공감-감정론으로 수렴 가능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특성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했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한 공감과 감정의 해석, 둘째, 행위능력의 원천으로서의 감정의 역할, 셋째, 공감이론을 기반으로 한 생활세계의 개념적 확장, 넷째, 축적·재생산되는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공감대가 그것이다. 필자는 이 네 가지 공감-감정론적 특성을 공감장이라는 분석틀과 연관해보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공감-감정론 차원에서 공감장이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5·18을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 다만 당초 연구 도입부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에 얼마나 근접한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자신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논의가 향후 공감장 개념이 유용한 분석틀로 정립되는 과정에 작으나마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2022년 4월 13일 접수, 5월 20일 심사완료, 5월 23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태수·신진옥. 2019. "세월호 '노란 리본'과 일베의 '폭식 투쟁': 공감과 혐오의 전형성과 그 비전형적 생활세계." 『문화와 사회』 27(3), 183-238.
- 강현아. 2004. "5·18항쟁의 성격·주체." 『민주주의와 인권』 4(2). 125-149.
- 김기성. 2021. "5월 광주공동체와 항쟁의 힘." 『감성연구』 22. 209-239.
- 김봉국. 2021. "순례공감장, 망월묘역과 5월의 기억." 『감성연구』 22. 307-348.
- 김상봉. 2010. "항쟁 공동체와 지양된 국가." 『민주주의와 인권』 10(3). 5-46.
- 김영택. 1988. 『10일간의 취재수첩』. 서울: 사계절.
- 김영택. 2010. 『5월 18일, 광주』. 서울: 역사공간.
- 김왕배. 2013. "도덕감정: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사회와 이론』 23. 135-172.
- 김왕배. 2021. "'분노의 분노'를 넘어, 5·18 항쟁의 시간과 기억." 『감성연구』 23. 191-225.
- 김정한. 2012. "절대공동체, 반(反)정치的神화." 『사회과학연구』 20(2). 104-127.
- 김홍중. 2008. "마음의 사회학: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33-241.
- 김홍중. 2014.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4), 179-213.
- 박영주. 2004. "'5·18 트라우마티즘' 연구의 현황과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4(2). 219-239.
- 박의경·황옥자·김용철·최은정·유경하. 2021. "5·18민주항쟁과 기억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21(2). 5-35.
- 박형신·정수남. 2009.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 이론』 15. 195-234.
- 변주나. 1996. "광주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15년 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9(2). 221-259.

- 변주나. 2000. "광주518민중항쟁부상자들의 비참감, 인지정도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종적연구." 『스트레스연구』 8(2). 63-73.
- 서유경. 2014. "5·18 민중항쟁과 시민 주도적 자치공동체." 『21세기정치학회보』 24(3). 161-185.
- 신진욱. 2005. "사회운동에서 감정과 인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59-166.
- 신진욱. 2007.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에서 도덕감정의 역할." 『경제와 사회』 73. 203-243.
- 안병욱. 2007. "5·18 광주민중항쟁의 의의와 역사적 평가."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3-39.
- 오수성. 1990. "광주5월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187-209.
- 5·18기념재단. 2006. 『5·18민중항쟁 연구의 현황(1-3)』.
- 5·18기념재단. 2011(2021) 「최후항쟁의 의미와 증언의 소명」 구술인터뷰 기록.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21. 『오월취재수첩』(5·18민주화운동기록물 자료총서 02).
- 윤택림. 2021. "5·18 기억과 구술사: 기억공동체에서 기록공동체로." 『구술사연구』 12(2). 55-85.
- 이무석·최호일. 2002. "꿈으로 본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내면 세계." 『정신분석』 13(2). 153-158.
- 이정로. 1989.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 『월간노동해방문학』. 5.
- 이영재. 2018. "소통적 연대 원리의 공감이론적 재구축을 위한 시론적 모색." 『정치사상연구』 24(1). 75-100.
- 이영재. 2022. "하버마스의 합리론적 생활세계 개념에 대한 공감이론적 재조명." 『담론 201』 25(1). 7-40.
- 정근식. 2003.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518다큐멘터리의 전개과정." 『민주주의와 인권』 3(2). 105-146.
- 정근식. 2012. "한국의 근대와 사회적 감성으로서의 슬픔에 관하여." 『감성연구』 5. 5-47.

- 정영수. 2020. "저항과 연대의 감정, 인(仁):5·18에 대한 감정론적 재해석." 『철학연구』 156. 229-248.
- 정유하. 2017. 『그래도 우리는 노래한다-민중가요와 5월운동 이야기』. 파주: 한울.
- 정일준. 2019. "5·18 사건의 현재화, 지구화." 『5·18연구의 계보학』(5·18 39주년 기념학술대회). 12-2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종합보고서(IV)』(인권침해사건).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1988. 『광주시민 사회의식조사: 광주의거자료집4』. 광주: 빛고을출판사.
- 최정운. 2007. "폭력과 언어의 정치: 5·18담론의 정치사회학."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401-463.
- 최정운. 2012. 『오월의 사회과학』 파주: 오월의 봄.
- 최선령. 1996. "광주민중항쟁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 『여성연구』 4. 19-35.
- 최영태. 2015. "5·18항쟁의 명칭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15(3). 113-148.
- 최현주. 2019. "빛진 자들의 타인에 대한 공감의 방식." 『5·18연구의 계보학』(5·18 39주년 기념학술대회). 38-51.
- 하홍규. 2018. "감정, 삶, 사회: 감정 사회학 이론들." 『세계정치』 29. 109-157.
- 한국기자협회 외. 1997. 『5·18특파원리포트』. 서울: 풀빛.
- 한상진. 2007. "광주민중항쟁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83-337.
- 한정훈. 2019. "5·18당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삶과 치유의 공감장." 『문학치료연구』 52. 149-192.
- 황석영·이재의·전용호. 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전면개정판)』. 파주: 창비.
- 황옥자. 2021. "5·18공동체와 감정." 『사회와 철학』 41. 96-130.
- de waal, Frans. 2009. *The Age of Empathy, Nature's Lessons for a Kinder Society*.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Habermas, J. 1981.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Boston: Beacon Press.
- Hume, David. 1739-1740.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by David Fate Norton and Mary J. Norton, with Editor's Introduction by David Fate Norton. 20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rrett, K. Richard and George Graham. 2014. "At the Empathetic Center of Our Moral Lives." in Heidi L. Maibom (ed.). *Empathy and Mor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empathetic sphere: Focusing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Yi Young Jae**

This article tried to focus on the areas of empathy and emotion of the May 18, which had not been paid attention to while approaching the rational analysis frame. Approaching the May 18 from the perspective of empathy-emotional theory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social scientific interpretation centered on rationalism, which has understood all collective action as an expression of irrationality and the result of the collapse of reason and rationality. This study suggested four characteristics of empathy-emotion theory. First, the interpretation of empathy and emotion based on social interaction, second, the role of emotion as a source of action ability, third, the conceptual expansion of the life world based on empathy theory, and fourth, social consensu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at is accumulated and reproduced. The reason for analyzing the May 18 using the empathetic sphere concept is to examine the dynamics of social emotions created through personal experiences and empathy with others and communities. In particular, through the concept of the empathetic sphere, I would like to suggest a new interpretation possibility of how the

* Research prof. The Third Sector Institute in Hanyang University

May 18 drove citizens' participation in Gwangju during the uprising, and furthermore, it was able to sustain itself for a long time at the center of th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in Korean society.

Key word: empathy, empathetic sphere, May 18, interaction, life-world